

# 유가족은 의사자 지정과 특례입학 등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4.16특별법	×	×
세월호민주연망	○	○
세월호법	×	○

유가족은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 등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유가족이 제안하는 <4.16 특별법안>은 오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과 분열시키는 유언비어가 심각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특별법 요구 서명 사실도, 유가족의 단식이나 단원과 생존자들의 행진 사실 등도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례입학'이니 보상이니 하는 내용만을 부각해 보도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TV뉴스만을 보면 진실을 잘못 아는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은 인터넷 대안언론인 팩트티비, 고발뉴스, 신문고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홈페이지에도 중요한 진실과 유가족의 활동 소식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wolho416.org>



## 세월호 서명자가 350만명이 넘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위한 서명 참여자가 350만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많은 수가 서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을 애도하며, 재발방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명용지는 유가족을 통해 국회 의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위한 서명은 천만 명이 될때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서명에 참여하셨더라도 주위 분들에게 권해주세요. 이곳에서 서명용지를 받아가셔서 다음에 전달해주셔도 됩니다.

창동역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저희는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라는 학부모단체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며 교육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4월 20일부터 촛불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2)902-9246

참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동북부지회

# “세월호 참사 이후를 위한 약속”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7월 23일 세월호 가족 300여명이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서울지역 합동분향소가 있는 서울광장까지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 발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제는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던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가족대책위는 출발 선언문을 통해 “진실의 문은 잠겨 있고 안전을 위한 출구는 없는 사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행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속수무책 침몰한 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며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여러 비난들은 저희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희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려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캄캄한 바다 속에 갇혀 스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나라의 모든 가족들이 침몰하는 배 속에서 오지 않는 구조대를 간절히 기다리며 스러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아이를 잃고 슬픔을 뒤로 한 채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부모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7월 22일 가족대책위 기자회견문 중)

##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100일이 다 되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탈진상태인 유가족들이 결국 단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식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세월호로 인해 잘못된 분들이 편히 눈을 감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켜보다가 이렇게 단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세월호 가족들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회나 정부가 우리는 죄인 취급하며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면 그것은 세월호에서 잘못된 분들에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단식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성이나 시위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호소를 드리고 여야가 하는 특별법에 대해 참여라도 해서 잘 하나 안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여야만 논의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세월호로 인해 잘못된 분들이 편히 눈을 감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은 저희들만의 특별법이 아닌 국민들 전체의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4일 단식에 들어가며, 유가족 김병권)

